

다시 오르는 금리, 5거래일 연속 유가 상승 압력에 3대지수 하락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재무부 조치에도 국채금리 상승하며 투심 위축

- 미 증시는 DOW -1.32%, S&P500 -0.87%, NASDAQ -1.00% 하락. 에너지 제외 전섹터 하락 가운데 헬스케어, 소비재, 산업재 약세
- 전거래일 미 장기채에 대한 정부개입 조치에도 하루만에 금리 상승하며 증시 전반 하방압력. 다만,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0.5% SK 하이닉스 주주환원 정책 발표에 힘입어 메모리주 중심 상승세 유지
- 모더나(-23.6%) 전거래일 +176% 급등 후 조정, 월마트(-9.2%) 실적 부진 영향 헬스케어 및 유통 섹터 약세

하루만에 사그라진 베센트 풋 효과, 유가 압력도 가세

- 국채금리 상승 30Y 5.25%(+5.5bp) 10Y 4.39%(+3.4bp) 2Y 4.19%(+0.8bp). 미 재무부 한시적 장기채 바이백 한도상향 조치에도 불구하고, 월가의 '근본적 상승 원인을 제거할 처방은 아니다'란 평가에 하루만에 다시 상승. 베센트 재무장관은 바이백 규모 추가 상향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함
-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클라리티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흐름 역시 채권시장 및 달러패권 보호와 유관
- 한편, 중동 평화협상 교착, 원유공급 차질 우려에 국제유가 상승 WTI \$86.6(+2.7%), Brent \$93.8(+2.4%)

한편 긍정적인 내용의 경제지표 발표

- 8월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 47.4 전월·컨센 대폭 상회, 5년 4개월래 최고치 기록. 미래활동지수·CAPEX 지수 크게 ↑ 지표 개선에 주효, 구매가격·수취가격지수 각각 ↓. 다만 신규수주 ↓
-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0.6만건 전주·컨센 하회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GOOG	알파벳	-1.0%	자회사 웨이모가 최신 세대 로보택시에 탑재되는 자체 주문형반도체(ASIC)를 개발해 양산 적용. 엔비디아와 AMD(+0.7%) 칩 의존도를 낮추고 데이터 처리 및 AI 모델 구동 속도를 개선. 이번 신형 칩은 1,000 TOPS 이상의 성능을 발휘, 해당 지표 기준 엔비디아의 최신 자율주행 시스템과 대등한 수준
NVDA	엔비디아	-0.3%	올프 리서치는 AI 반도체 업종 전반에 강세 시각을 유지하며, 동사를 최선호주로 제시. 빅테크의 CapEx 전망 상향 조정 및 공급망 데이터가 지속적인 지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전반의 환경이 매우 견조하다 평가. 최선호주 선정 이유로는 기존 공개된 정보가 가장 제한적이라 시장 컨센서스 대비 실적 상향 여력이 가장 크다고 분석
XOM	엑손모빌	+0.8%	엑손모빌은 카자흐스탄 정부에 자국 최대 유전의 생산량이 이미 정점에 근접했으며, '35년까지 고점 대비 약 40% 급감할 것이라고 카자흐 정부에 경고. 사측은 카사간 개발 지역 내 신규 석유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나, 정부와 다국적 기업 간의 오랜 분쟁 및 \$5B 규모의 환경 과징금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
WMT	월마트	-9.2%	실적발표.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연간 가이드언스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,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시장 실망감에 주가 급락. 2분기 미국 동일점포매출 성장률이 약국 약가 규제 영향 및 오프라인 매장 매출 둔화로 6년여 만에 최저치인 +2.6%YoY를 기록하며 예상치(+3.8%) 하회. 반면 이커머스 및 멤버십 부문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. \$2.9B 규모의 관세 환급금을 활용해 상품 가격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
DE	디어	+9.4%	실적발표.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 강세. 데이터센터 및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향 건설·산림 장비 수요 호조에 힘입어, 11개 분기 만에 이익 턴어라운드 달성. 연간 순이익 가이드언스를 \$4.5B~\$5.0B→\$4.75B~\$5.0B로 상향 조정